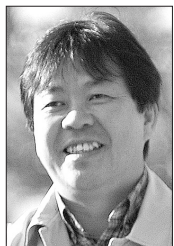


저자가 말하는 이 책

책이 쏠아진다. ‘책 공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책 대부분에는 저자의 혼이 담겨 있다. 본보는 저자로부터 저술의 동기와 배경, 내용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대문학 연구자 위한 이론·비평서

●양병호 교수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국내에서 인지시학에 대한 연구가 촉발된 것은 90년대 중반 인지의 미론자인 조지 레이코프, 마크 터너 등의 저서가 번역되면서부터다. 이후 언어학 분야에서는 인지의미론 영역이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문학 분야에서는 ‘은유’ 연구를 중심으로 인지의미론을 문학에 적용한 연구들이 대거 발표되었다.

본래 ‘인지시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보다 앞서 1983년 헝가리 출신의 연구자 르우벤 취에의 해설이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이때부터 인지시학은 초기 은유 연구에서 벗어나 시어 및 운율, 시에 사용된 시나리오, 개념적 혼성 공간 등에 관한 연구, 소설에서의 문제, 인물, 플롯 및 우화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하나의 시학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은 시인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텍스트로 기호화되는가, 독자가 시 텍스트를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인지하는가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인지적 절차를 규명하고 연구하기 위해 ‘인지시학’은 언어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컴퓨터과학, 생물학, 문화인류학, 정신분석학 등을 넘나드는 제학문적 입장을 취하는 문학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이다.

따라서 인지시학을 원용하여 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주체자의 주체적인 의미의 구축과 탐색을 통해 창조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인지시학에서 주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은유’ 연구인데, 은유는 단순한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것들에 대한 사고의 문제라는 것이 인지시학의 입장이다. 인간의 개념 체계는 본능적으로 은유적이다. 하나의 사물을 인지할 때 다른 사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나 속성 중 그와 비슷한 것을 선택하거나 인접적인 것을 상호 결합시키면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하여 은유는 사물의 감춰진 속성을 인지하는 주요한 도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인간의 개념 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은유가 인지적 패러다임에서 매우 중심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다툼이 아니라 은유의 토대가 인간의 경험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지시학은 언어 구조의 비자의적이며 동기화된 성질을 강조하여 주목한다. 따라서 은유의 체험적 바탕에 대한 언급은 흔히 제기되는 문제인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촉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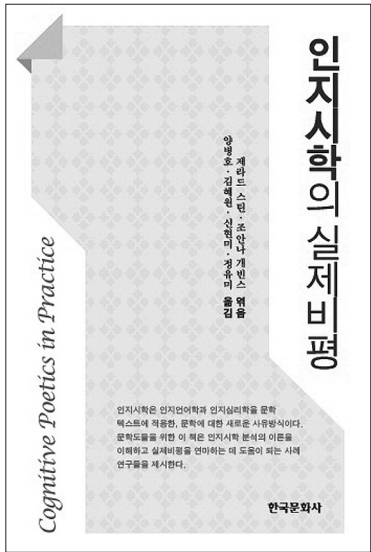
연구원 인지시학 이론
직접 작품에 적용 분석
12편의 실제 비평 모아

국내 인지시학의 안내자로 전북대 이기우 교수를 꼽을 수 있는데, 1994년 번역된 <시와 인지>를 비롯하여 많은 인지시학 관련 저서들을 번역하였다.

그러한 흐름을 지금은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시문학 연구팀이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학위 논문 및 소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필자와 연구자들이 이번에 공동으로 번역 출간한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또한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현재도 서너 건의 번역 및 저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된 ‘인지시학’ 관련 서적들은 대부분 인지시학 방법론에 대한 개론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그간 현



대문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인지시학’ 이론들을 직접 작품에 적용하여 분석한 12편의 실제 비평을 모아 놓은 책이다. 하나의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한 ‘인지시학’을 실제 작품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인지시학 연구의 활성화에 폭넓게 기여할 것으로 자량하고 있다.

이 책을 구성한 12명의 저자들은 편집자인 제라드 스턴, 조안나 개빈스를 비롯하여 피터 스토크, 엘레나 세미노, 르우벤 취 등 현재 세계 인지시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핵심 연구자들이며, 필자와 함께 번역에 참여한 김혜원, 신현미, 정유미 연구자 또한 인지시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다.

<인지시학의 실제비평>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인지시학’을 널리 알리고,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획기적인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전북대 양병호 교수(국문과)는 <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며, <구봉서와배삼룡> <간의공터> <한번 참말로 맑게 반짝이더라> <그러나 짜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의 시집을 냈다. <한국 현대시의 인지 시학적 이해> <시어 연애를 하자> <그리운 시어 행에서 만나다>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등의 저서가 있다.

함께 행복하고 슬퍼하는 공동체 정신 담아

이삭빛 두번째 시집 <우분트> 발간

‘우분트’.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는 반투족 말이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슬퍼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삭빛 시인(본명 이미영)이 그 ‘우분트’를 두 번째 시집 제목으로 걸었다(수필과비평사). 시인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시집 제목만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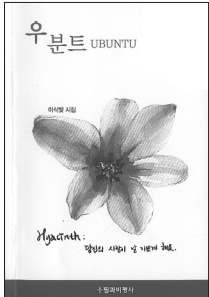
독서모임, 문학지 발행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지역의 역사문제에 천착했다. ‘독도’ ‘주논개’ ‘정담장군의 마지막 편지’ ‘황진장군’ ‘훈불’ 등으로 지역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출했다.

“언제부턴가 전주한옥마을을 찾았고

오목대와 인연이 됐다. 무지개 나라이야기처럼 그냥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이끌려 오목대 시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시인은 “작은 시 나눔기워드 하나로 시작한 몸짓이 관광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역사 속 인물들이 나의 발에 봄비로 내려와 새롭게 변화시켜 줬는지도 모르겠다”고 시집 서문에서 밝혔다.

김경수 시인은 “너와 함께라면” 시를 평하면서 “이삭빛 시인의 사랑은 희망이고, 어둠을 불사르는 빛이다. 그래서 지옥까지도 함께 가보자는 정신적 흔적을 표출한 점에서 대단히 고백적이다”고 했다. 간헐 있는 얼음 밑의 물, 매서운 겨울, 지옥, 땅 끝의 모습에서 체득한 시인의 의식은 어느새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분트’



하는 존재로 사랑을 맞이하기 위한 자신의 신념이 깊어지는 데서 시인의 사랑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 지를 읽을 수 있다.

<한국그린문학발행인>, 전주연합독서포럼 논개의아미희 대표, 작각의시학연구회 전북지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시집으로 <당신은 나의 푸른 마중물>이 있다.

김원용기자kimwy@

이름에서 사회 흐름을 읽다

향토문화연구가 정평모 <비전 성명학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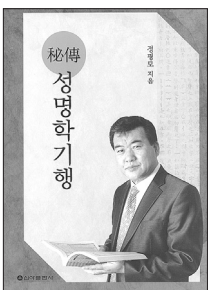
향토문화연구가인 정평모씨(장수군청 교통담당)가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비전 성명학기행>을 냈다(신아출판사).

저자 자신이 호적과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름이 갖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읽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름, 나락으로 빠진 사람과 잘 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비교 분석한 것도 흥미롭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주역으로 해설한 것도 재미있다.

저자는 실제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이름을 짓게 됐으며, 작명가들을 찾아 그들이 전수하는 비전을 기행담으로 기록했다. 그동안 <장수문학>에 기고한 글을 모아 성명학의 입문, 기행, 실전작명, 이론편으로 구성해 엮었다.

저자는 “수리성명학, 사주성명학, 납음오행, 주역성명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마치 성명학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다”며, 성명학의 시대적 변화를 짚었다.

“무릇 작명가는 성명이 한 사람의 일생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작명하는 만큼, 학문에 대해 편애를 가져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작명가가 지은 이름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호불호를 논하고 개명을 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자는 또 “결작은 어려움을 이기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며, “개인의 업적이기보다 장수군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죽보 인물사 단행본 <화지산>, 풍토 <전주 빛 30년 사랑> 등의 저서를 냈다.

김원용기자 kimwy@

앞으로 책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제이슨 머코스키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에서 전자책 단말기 ‘킨들’ (Kindle)을 직접 개발한 제이슨 머코스키가 책의 미래를 내다봤다.

그는 인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런 흐름이 독자와 저자, 출판사와 유통사 등 출판 산업에 끼칠 영향을 살펴봤다.

저자는 미래의 전자책 단말기는 USB 메모리장치 정도의 크기에 클라우드 기

능과 초소형 프로젝터가 내장됐고 음성으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래에는 ‘한 권의 책’만 존재하리라고 한다. 인류의 모든 책이 디지털화돼 모든 항목이 링크로 연결되고 본문, 주석, 비평, 댓글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형태다.

그는 이런 시대를 ‘리딩 2.0’이라고 부른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읽는 독서가 ‘리딩 1.0’이라면 ‘리딩 2.0’은 시공을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독서하는 형



태를 말한다. 저자는 더 먼 미래에는 문자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구술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전망도 내놔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사람의 음성으로 회귀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사냥한 동물이나 갇힌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단순한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옮김, 흐름출판.

연합뉴스

(주)썬텍은 태양광 발전소 전문회사로서 분양, 컨설팅, 설계, 시공,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태양광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분 상담
- 태양광에 적합한 건물옥상, 지붕있는 분 상담
-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허가난 토지매입
- 태양광발전소 A/S 및 유지관리대행
-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분양
투자수익률
년간 약13~14%

주 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21-1
분양 용량 100kw급
발전 개수 16개소
형 식 고정가변형
금융 지원 시설비 약50% (토지+시설+신용)
시중 은행 이자 년 약 4.3%(10년 분할상환)
*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
투자수익률
년간 약12~13%

주 소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산 46-27
분양 용량 100kw급
분양 개수 3개소
형 식 고정가변형
금융 지원 시설비 약50% (토지+시설+신용)
시중 은행 이자 년 약 4.3%(10년 분할상환)
*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
투자수익률
년간 약14~15%

주 소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840-12
분양 용량 100kw급
분양 개수 10개소
형 식 작물재배사
금융 지원 약 일금1억 6천만원
시중 은행 이자 년 약 4.3%(10년 분할상환)
*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